



송광사 등의 전통불화를 담은 화보집 <한국의 불화>

송광사회엄사선암사 전통불화 총망라 '한국의 불화' 4권 출간

전국의 사찰에 봉안된 불화를 비롯해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전통불화를 수록한 <한국의 불화> 네 권이 나왔다.

이번에 나온 <한국의 불화>는 권6, 권7의 '송광사 본말사편' 권8, 권9의 '화엄사 본말사편' 권10, 권11 '선암사편', 권12 '선암사편' 이므로 지난 96년부터 성보문화재연구원(총재 석정)에 의해 발간된 <한국의 불화>는 모두 12권이 됐다. 이들 네권 화보집의 특징은 모두 호남지역의 불화를 담고 있다는 점. 호남지역의 불화는 명주 바탕에 장엄된 것이 많아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이지만 유실된 것이 많지만 내용이 다양하고 그림 자체도 매우 우수한 것이 많다.

또 조선 중기 이후 송광사와 선암사 양대 사찰에서 직접 화원(畵員·불화 그리는 사람)을 양성해 불화를 제작해오던 서로 비슷한 주제의 불화들이 보이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고,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불화의 명칭과 봉안처, 조성연대, 조성 불사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 조성에 소요된 재료와 비용을 보시한 시주자의 이름 등이 기록된 화기(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어 불교사, 미술사, 사회사 등 여러 학문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각 권 구성은 불화의 유형과 예배의식 절차에 따라 후불탱, 보살탱, 시종탱, 각부탱, 진영, 도량장엄 순으로 엮었다. 매권마다 최근의 연구성과를 포함한 관련 논문도 실어 불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송광사 본말사편'에는 모두 1백34점의 불화가 수록돼 있는데, 일곱 장수와 아홉 번에 걸쳐 <화엄경>을 설하는 장면을 탱화로 표현한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과 현존하는 1·2·14대 국사탱(모두 16국사) 외에도 유실된 국사탱을 전부 조사해 수록한 것이 눈여겨 볼 만하다.

'화엄사 본말사편'은 '화엄사 괘불' (국보 31호)과 '천운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탱' 등 화엄사 말사인 흥국사와 천운사에 소장된 불화를 포함해 모두 82점을 수록하고 있다. '선암사편'에는 송광사 화엄탱과 동일한 불화로 내용과 기법이 뛰어난 '팔상전 화엄탱'을 비롯해 '칠불탱'과 '오십삼불탱' '천불탱' 등 불교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재래신앙과의 충돌을 극복하려는 불교의 의지를 담은 불화들이 관심을 끌 만하다. 모두 89점이 담겨있다.

성보문화재 연구원은 내년도에 '금산사 본말사편' '선운사 본말사편' '대학박물관편' (상·하)을, 2년후에는 '마곡사 본말사편' '수덕사 본말사편' '국사립 박물관편' (상·하)을 펴낼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禪음악 '혜초' CD 나왔다

유승엽씨 작곡...인도 전통악기 오키리나로 연주



문화인물에 혜초스님이 선정되어 이번 유씨의 작곡은 한층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19살의 나이로 부처님의 자취를 찾아 험난한 구도여행을 떠난 혜초스님의 구법을 향한 일생을 선(禪)음악이란 장르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유지컬 '님의 침묵'의 작곡가 유승엽씨가 <왕오천축국전>의 저자 혜초스님의 일생을 음악으로 표현한 '禪음악 I 혜초' CD를 펴내 화제다. '혜초'는 휴스로 만든 인도전통악기 오키리나를 사용해 연주, 세속을 씻어내는 듯한 청풍(淸風)과도 같은 맑고 신비로운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703년 연화장 △천축국을 향하여 △나체의 나라 △롬비니 꽃동산 △부다가야의 보리수 △북악원의 달밤 △히말라야 △머나먼 고향 △파밀르 고원을 넘어 △787년 연화장 등 모두 10곡으로 혜초스님이 태어난 703년부터 스님이 걸어다녔던 구도여행지, 787년 입적할 때까지의 일생이 40여분동안

잔잔하면서도 명상적인 선율에 실린다. 마침내 2월 '이달의 문화인물'에 혜초스님이 선정되어 이번 유씨의 작곡은 한층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혜초스님은 16세 어린나이에 중국으로 가 19살의 나이로 부처님의 나라 인도로 구법여행을 떠나 유명한 구도여행기 <왕오천축국전>을 남겼습니다. 스님의 그 간절했던 구도심을 음악으로 그리고자 했고 작곡하는 내내 이 음악을 들음으로써 우리도 스님의 구도 열정을 본받아 부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라고 말하는 유씨는 지난해 10월 캐나다에서 오키리나를 본

후 인도고대부터 있었다는 이 토기악기의 신비스런 소리에 매료돼 연주법을 배웠고 이번 음반에서 연주도 직접 했다.

"선음악이란 마음을 잔잔하게 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 음악을 말합니다. 미국 등 서양에서는 선의 보급과 더불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위주의 시끄러운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걱정입니다. 음악이야말로 사회를 맑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요."

독실한 불자로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남이시여' '반야심경' '법구경' 등의 노래와 만해스님을 그린 유지컬 '님의 침묵'을 작곡한 유승엽씨는 앞으로 '원효' 등 위대한 스님들을 주제로 해 악기를 정해 독특한 선율을 계속 작곡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nia.com)



△17일 창단연주회를 가진 경주 선재어린이합창단

경주 선재어린이합창단 창단

단위 사찰이나 유치원에 속한 기존의 불교어린이합창단과는 달리 게임, 율령, 동천 초등학교 등 경주지역 20여개 초등학교를 아우르는, 대구 경북 유일의 불교어린이 연합합창단 '선재어린이합창단' (단장 종문스님)이 탄생했다.

17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지고 출범한 선재어린이 합창단은 최은수씨 지휘로 성대 불국사 주지, 총무 분황사 주지 등 1천 여명의 관객들 앞에서 찬불가 전래동요 민요 영화 주제가 등 장르를 넘나들며 총 16곡의 노래를 선보였다. **이윤호 기자**(hylee@buddhania.com)

불심시심 <147>

비 뒤에 조화 이룩다

雨過東山後 (우과동산후)	感勸遺化成 (은근회화성)	暗紅桃杏開 (암홍도행간)	歌綠楊柳眉 (가록양류미)	村酒香而醇 (촌주향이록)	春琴蕩蕩清 (춘금탕탕청)	淵潭吟久坐 (간애음구좌)	物色少留情 (물색소유정)
비 지난 동산의 뒤에는	은근회 조화 이루어지다	은은한 붉은 복숭아 살구나무 사이	연한 푸르름은 오동 버들이 드리다	마을 술은 향기로우며 해맑고	물날 거문고는 호탕하다 맑아져	시내 바위 오래 앉아 읊조리니	모든 물색이 잠시 정을 멈춰주네.

월하(月荷 1773~1849)대사 은 나무꽃으로서의 첫 장식을 피는 것일 수가 있다. 깊어가는 봄의 전령사 노릇을 한다 할 것이다. 이 달하의 빛을 살 구와 복숭아의 '사이'라 하였다. 피는 시기의 간격을 말할 수도 있고, 봄을과 흰색의 사이일 수 있으니, 이 역시 단어 하나의 묘미이다. 거기에 맞물 리는 연록의 버들이다.

봄의 운치에 시주(詩酒)가 빠질 수 없으니, 익어가는 춘 술과 탕정까지라도 불러올 거 문고의 등장이다. 술은 향기로 우연히 해맑고 거문고는 호탕 하다가 맑아지는 이 상반될 듯 한 시어들의 조화가 역시 스님 으로서의 시인인 상이방(聖而 凡)이요 범이성(凡而聖)적 작 시의 고수라 하고 싶다. 어찌 되었건 바위서리의 음사에서 잠시 빼앗기는 정은 우리네의 속정이 아닌 초탈자의 참정이 분명하다.

이준찬 (동국대 명예교수)

'고승열전 조선편' 태상출시



불교방송(사장 성낙승) 포교자료를 위한 불교방송에서 인기리에 방 송됐던 '고승열전' 프로그램을 보급용 태상으로 제작 28일 출시했다.

80개 한자로 구성된 이번 '고승 열전 조선편'에는 조선 건국을 위 해 현실 정치에 뛰어 들었던 무학 대사, 조선 불교 중흥의 등불을 밝 힌 보우대사, 금오신화를 집필한 김시습, 국난극복의 보살도를 보여 준 서산·사명대사 등 조선조 고 승대대 다섯명의 치열했던 구도열 정이 담겨있다. (02)705-5305

■보화각 설립 60주년 기념 특별전



△금동보살입상 (보물 제285호)

일제 강점기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한 故 간송 전형필(1906~1962) 선생이 간송미술관 전신인 보화각을 설립한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간송미술관은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11월1일 까지 특별전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삼국시대 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금 동보살입상, 계미명상존불상 (국보 72호)을 비롯해 고려상 감청자를 대표하는 청자상감 은화문매병, 청자상감연지인 양문정병, 청자압형연적, 청 자원형연적, 청자기린형향로, 백자파산향로 등 국보급이 망라돼 있다. (02)766-0442

■불교유물전시회 '여기저기'

■중국 낙양문물명품전

국립부여박물관은 12월 말까지 중국 낙양문물명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명품전에는 중국 낙양박물관의 협조로 당나라시대의 불교조각품을 비롯해 당문화의 진수 당상채 와 도자기, 도용 등 90여점의 진품이 선보인다. 특히 낙 양 북방산에서 발견된 백제 의자왕의 아들 부여용의 묘지 (묘조품) 등 우리나라 고대문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물도 포함돼 있다. 12월 부여박물관에서 전시를 마친후 내년 6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전주 박물관 등에서도 순회전시될 예정이다. (0463)33-8561

■발해 건국 1천3백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

발해건국 130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전. 11월29일까지 전쟁기념관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는 기획전은 도입물, 황제의 나라, 군사, 종교문화, 발해인의 삶과 죽음, 대외관계 등으로 나눠 발 해 불상, 수도인 상경성 복원도, 국내 및 중국 러시아 일



△러시아 크라스 키노 성터에서 발굴 된 발해불상

■비전(肥前)과 고려-원구·왜구와 고려의 미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으로 11월15 일까지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 전에는 우리문화재 23건 29점이 출품돼 고아한 자태를 자랑한다. '금동제련지동자경갑(金銅製蓮枝童子經匣)' 과 '은제당초문경갑(銀製唐草文經匣)' 등을 비롯 고려시대의 불상·법종·도자기 등이 다채롭게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고려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력을 알리고 자 마련됐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nia.com)

총무원장 스님 우리 학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십시오

-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의 3선 출마에 대한 석림회의 입장 -

제 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의 3선 출마와 '송월주 스님 후보 추대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사부대중의 뜻을 짓밟고 종단의 분열을 야기시킨 송월주 스님과 '후보추대위원회'에게 참회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종단의 어른으로서 현 조계종 행정부의 최고수장으로 어른 스님다운 모습과 탐·진·치 삼독과 5욕에 오염되지 아니한 수행자다운 스님의 진면목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학인들이 현 총무원장 스님을 어른스님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자리에 연연(躑躅)하지 말고 '방하착'할 수 있는 진정한 수행자의 미덕을 보여주십시오.

1. 총무원장 스님 종도들의 애증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시고 94년 개혁불사를 상기하십시오. 1994년 4월의 종단 개혁불사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종도들의 뜻을 저버리고 무리하게 3선연임을 강행 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송월주 총무원장스님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장기독재집권(3선)으로 인하여 한국불교의 장기종단인 조계종단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이 3선출마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전 서의현 총무원장과 같은 반승가적이고, 반화합 적이고, 반개혁적인 행동입니다. 당시 우리 학인 스님들은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저희 학인들은 모든 종도가 화합할 수 있고 안정된 종단속에서 평화롭게 부처님의 혜명을 밝히기를 원 합니다. 총무원장 스님 94년도 개혁불사를 상기하시고 우리 학인들이 진실로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 위원회'의 중단을 촉구하고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3선 출마'를 반대합니다. 3선 반대를 명시한 중흥을 종단 최고 행정책임자가 먼저 어기고 3선 출마를 강행한다면 중흥중흥은 유 명무실한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국가의 국법을 어긴 범법자와 같은 것입니다.

3선이 안된다 종헌중흥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소수 권승들의 세속적이고 반승가적인 독선 과 야만으로 3선의 당위성을 강변하여 종단의 대립과 분열을 조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인들은 화합을 파하는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며 극소수 권승들은 종도를 앞에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총무원장 스님은 3선출마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종단은 일대 혼란 속에 빠질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94년도 개혁불사와 같은 그런 불행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수십년간의 활동으로 쌓 아온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의 대사회적 위상도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학인들은 하루빨리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과 '총무원장 추대위원회'가 우리 종단이 처해있는 현실을 바 로 보고 종도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받아들여 3선 불출마 선언을 천명하시길 진심으로 권고 드립니다. 석림회는 중흥중흥을 어기고 3선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후보 추대위'의 즉각적인 해체와 종도들에게 참 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앞으로 21C 불교를 짊어지고갈 한국 불교의 동량인 우리 학인 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십시오.

석·림·회·의·요·청
 - 송월주 스님 후보 추대 준비 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은 '총무원장 불출마 선언'을 언론에 발표할 것을 요청합니다.
 - 송월주 총무원장 3선출마와 관련된 권승들은 사부대중앞에 참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석림회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3선을 강력히 반대하여 위법망구,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불기 2542년 10월 21일

동국대학교 석림회